

눈이 피로하면 간(肝)도 피로하다

1. 간심비폐신 (肝心脾肺腎: 눈, 입술, 혀, 코, 귀)

한방에서는 외부와 내부 기관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오장육부의 상태를 겉모양을 보고 진단해 오고 있다. 따라서 눈의 피로는 간장의 피로를 의미하며 눈이 뻑뻑하면 간장이 쉬어야 함을 나타내며 눈이 충혈된 것은 이미 간열(肝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술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놀래거나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입술이 파랗거나 입술의 혈색이 약하게 된다. 혀는 비위(脾胃), 즉 소화기관과 깊은 관계가 있다. 소화기관이 나쁠 때 혀에 설태가 끼거나 백태가 끼게 된다. 입에서 구취가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비위와 연관시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눈의 시력이 극히 나빴던 사람이 버섯 균사체를 복용 후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 심한 음주로 숙취가 심한 경우, 버섯 균사체 제품 복용 후 쉽게 숙취가 없어지는 경우 등은 버섯 균사체가 간(肝)에 크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2. 영지 균사체는 과산화지질을 억제

버섯 균사체가 간(肝)에 좋다는 사실은 국내적으로 수많은 임상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 건강식품전이나 식이요법 상담자는 이미 버섯 균사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표고버섯 균사체는 이미 수 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시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영지 균사체 제품이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다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도 큰 개가라 할 수 있다. 버섯 균사체는 과학적인 임상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고 지금도 국내외의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이론과 실제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번에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코자 한다.

일본 에히메 대학 기부라 교수팀이 1984년 5월에 발표한 임상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肝)에 대한 유용성을 설명하고 있다.

“영지 추출물이 과산화지질(발암물질로 변성되기도 함) 형성을 억제하고, 이 실험에서 영지 추출물 중 수용성 분획 및 아세톤 용출 분획을 1mg/ml 농도로 가했을 때 ADP와 NADPH에 의한 간 마이크로솜(Microsome)에 의한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100% 억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영지 균사체가 과산화지질에 의한 간세포 기능의 파괴를 방어할 수 있다.”

3. 버섯 균사체는 B형 바이러스가 다른 간세포벽을 뚫지 못하게 막아

일본 야마모토 교수는 버섯 균사체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또다시 간세포 벽을 통해 다른 간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그의 임상에서 밝히고 있다.

간세포에 대한 영지 균사체의 효과는 국내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1991년 영지 국제 심포지엄에서 조선대학교 약학대 정명현 교수는 영지 엑기스의 간(肝)중독에 대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즉, 영지 엑기스는 간장을 손상시킨 쥐(Rats)의 간장중독에 대하여 현저한 개선 효

과가 있음이 인정되었으며, 시료(試料) 300mg/kg 투여가 보다 효과적이었다고 했다. 영지 균사체의 간염 효과에 대해 중국의 임상자료 중에서 호남성 인민의원에서 50명의 간염환자에게 시럽형태로 1일 3회씩 투여했다. 1일 용량은 60ml를 3개월간 시험한 결과 현저하게 효과를 본 사례는 44%, 총 유효율은 98%로 나타났으며, 호남중의학원에서는 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현저한 효과를 본 사례는 3개월만에 70%, 총 유효율은 97%였다. 그밖에 중국 복건 태령한의원에서 83명을 대상으로 45ml~50ml의 시럽형태로 1개월간 투여 후 결과는 95%에서 유효반응을 보였다. (상기 의원들은 종합병원임)

버섯 균사체는 면역력 증진·조절제(Immunomodulator)이기 때문에 간염환자 중에서 감기에 감염시 감기약 등을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투여하면 면역력 증진으로 인해 감기를 모르게 되며 설령 감기가 들었다 해도 속히 퇴치시킬 수 있는 신기한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4. 간염·간암 환자의 실례

최근에 국내에서 영지 균사체가 시판된 이후 간염환자에 투여해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19세 남자의 경우 우측 간엽에 10.2×9.9cm 암 덩어리가 초음파 검사로 확인되었고 A, F, P, 수치(암세포 증식확인 수치)가 350이었으나 식이요법과 1차 동맥색전술, 영지 균사체를 800mg씩 1일 3회 투여한 결과 70일 만에 5.5×5.2cm로 줄어들었으며 그 후 38일 후에 검사결과 4.1×4.2cm의 크기로 줄어들었다.

또한 25세 남자의 만성간염(B형)의 경우 항원을 나타내는 HBeAg의 수치가 176,238로 양성반응을 나타내었던 비 식이요법 및 영지 균사체 600mg씩 1일 3회 부여한 후 60일만에 검사치는 HBeAg가 0.662로 소실되었다. 혈액검사 결과도 백혈구 수치가 증가되고 혈소판 증가 및 S-GOT, S-GPT도 113에서 36으로, 168에서 35로 각각 정상으로 돌아왔다.

버섯 균사체는 특히 바이러스를 없애는 인터페론 유도체가 함유되어 있고 B임파구로 하여금 항체 생성에 도움을 주는 이중쇄 리보핵산(Double-Stranded RNA)이 다량 묻어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그 과학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5. 영지 균사체 속의 다당체는 간경화의 진행을 막는다

보통 B형 바이러스, C형 바이러스가 만성이 되면 간경화로 5년 내에 20~30% 진행된다는 보고가 있다. 간경화는 간세포가 섬유화(纖維化) 또는 결절화(結節化)되어 간세포 기능이 줄어들게 됨으로 나아가 간에서 단백질을 알부민과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대사(代謝:필요한 물질로 바꾸는 작용)시키지 못하여 복수를 수반하기까지 한다(대개 알부민 수치가 2.4g/dl 이하일 때 복수가 차기 시작함).

국내에서도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약품연구소 손동환 교수팀은 실험쥐(Rat)에게 영지 균사체를 투여한 결과 섬유화 억제효과가 있었으며, 조직 검사 결과 간 손상 정도가 상당히 호전되었으며 혈청 검사 결과에서도 혈청 중 AST, ALT, ALP 등 수치가 상당히 감소되고 간경화의 진행을 막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

문의 : 한국마그나스 02-514-4657

참조 : 「간을 보호하고 암을 이기는 버섯 균사체」책자에서 발췌
(서울대 김병락 명예교수, 한국 버섯 균사체 연구소장 손의섭)